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적·대담한 性

잠자리 갖기도 겁난다고요?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빈뇨, 급박뇨, 배뇨통 등의 방광자극 증상이 있
으면서 신장병,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
이 있거나 임신중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 약물
치료 후 2-3일이 지나도 증상개선이 없거나 열
이 발생한 경우, 성병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반
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치료가 어려운 성관계를 금하며 물을 많이 마
시고 알코올, 카페인 및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는
피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다량의 수분 섭취,
크랜베리 주스·비타민 C의 복용, 소변이나 배변
시 앞에서 뒤로 세척, 항문이나 생식기를 닦을 때
좌욕 대신 샤워, 성 관계 전 생식기 주위 청결과
함께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소변
을 참지 말고 느슨한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과민성 방광, 만성 방광염, 초기 방광암 등 증
상은 비수술이나 원인이 다른 경우도 많으며 간과
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오줌소태라 부르
는 급성 방광염으로 선부르게 판단하여 자가치
료해 병을 키우지 말고 방광시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명비뇨기과원장>

비뇨기과는 남·여 구분없이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만들어지고 통과하는 요로계 및
남성 생식기 계의 질환을 다루는 곳이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들만의 질환을 다루는 곳으
로 잘못 인식해 여성들이 내원 자체를 꺼렸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및
여성들의 인식 변화에 맞춰 배뇨장애 때문에 병
원을 찾는 노인과 여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신혼인 신부 한모씨는 첫날밤까지는 잘 치렀
지만 신혼여행 3일째부터 소변을 자주 보고 불
 때마다 짜릿한 통증이 오다가 점차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덜 본 느낌이 들면서 하복부 통증
이 나타났다. 소변을 본 후 약간의 피가 팬티에
 묻어 나오는 등 증상이 심해지면서 신경도 날카
로워지고 신장 때문에 못된 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과 혹시 내 잘못으로 신랑에게 전염되

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잠자리를 갖기도 겁나고
걱정돼서 비뇨기과를 찾았다.
진찰 결과 신혼여행 중에 잘 발생하는 방광염
이란 뜻의 '밀월성 방광염'으로 나왔다. 이는 급
성 방광염의 일종이며 서로를 완전히 모르는 신
혼 부부에게는 뜻밖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최초
의 부부싸움을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다. 신혼 초의 과도한 부부관계가 요도를 자극해
서 항문이나 질 주위의 균들이 요도를 통해 방광
으로 전달되어 갑자기 급성염증을 일으키는 것
으로 성병은 아니므로 선부르게 배우자를 의심
해서는 안 되며 대부분 2~3일이면 완치가 되므
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증상이 있음에
도 무리한 성관계를 계속 갖는 다들 치료할 계
을리 하게 되면 증상의 악화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급성방광염은 남성에게서는 드물지만
여성들은 평생에 한번 이상은 경험하게 되는 아
주 흔한 질환이다. 남성의 요도가 15~20cm되
는데 반해 여성의 요도는 4~5cm 정도로 지나
치게 짧고 직선이며, 요도 입구 주위에 질 입구
와 항문이 가까이 있어 균이 요도를 통해 거슬러
올라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방광
염은 환자가 호소하는 배뇨증상과 통증 외에 고
열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간단한 소변검사로 진
단할 수 있고 단기간에 쉽게 치료되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치 않으나 빈뇨, 잔뇨감, 하복부 통
증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자주
재발해 괴로움을 안겨주기도 한다.
만성화가 되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추가적인 각종 비뇨기과적 검사를 시행해야하
며 치료도 까다로워지므로 발생시 바로 병원을

리빙 센스

먹고 남은 찌꺼기 활용하기

건강을 생각해 녹차와 허브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 다양한 용도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탈취제
차잎 말린 것을 냄새가 나는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주변
에 뿌려두면 벌레나 냄새를 제거하는데 좋습니다.
▶목욕제
차잎을 찻잔 주머니에 넣어 물에 띄워두었다가 목욕을 하면
피부에 윤기가 나고 피로회복과 피부병에도 효과적입니다.
▶기구 냄새 제거
새로 장만한 기구에서 나는 냄새는 차잎을 이용해 간단
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잎을 담긴 물에 걸레를 빨아서
기구를 닦아내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료
차잎의 단백질 성분은 식물의 발육에도 도움을 줍니다.
먹고 남은 차잎을 정원이나 나무 화초에 뿌려 주면 훌륭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풀어봅시다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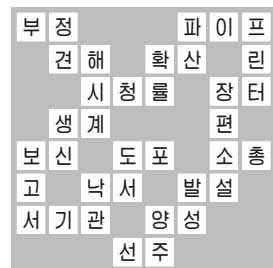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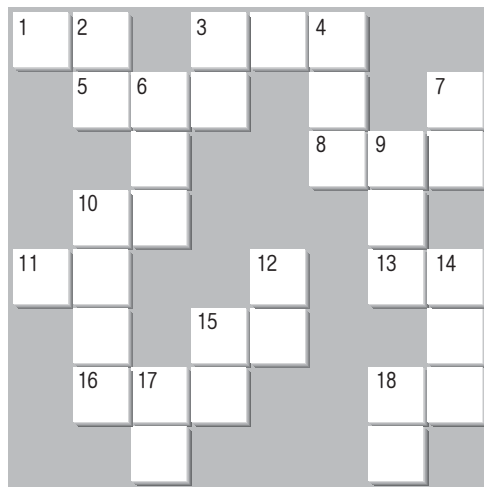
→ 가로풀이

- 1.기차나 자동차, 배 등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
어 옮김. 현금 ~ 차량, 3.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
어난 아이. 보통 29주에서 38주 안에 태어난 아이.
→조생아, 미숙아, 5.어떤 병에 걸린 환자에 그 병
으로 죽는 환자의 비율. 백분율로 나타낸다. 8.과거
에 집안의 혈통을 이을 아이를 다른 여자가 대신 낳
아 주는 일. 또는 그 여자. 10.종교를 믿는 사람. 불
교 ~. 기독교 ~. 11.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함. 또
는 그런 결혼. 요즘은 ~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13.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이야
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 15.정한 수하나 정
도에 차지 못할. 또는 그런 상태. 18세 ~은 출입금
지다. 16.주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더불어 생기는
물건이나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 환경오염은 공업

화의 ~이다. 18.시에 쓰는 말. 또는 시에 있는 말.

↓ 세로풀이

- 2.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
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검찰로 ~됐다. 3.약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
어 고름. 또는 문제를 어떤 대상에 알맞게 조절함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전 ~이 필요하다. 4.
여자 아이나 시집갈 나이의 처녀 또는 갖 시집은
색시를 높여 이르던 말. 궁중에서 아주 어린 왕자
나 왕녀를 높여 이르던 말. 공주 ~는 결혼마를 시
작했습니다. 6.동양화에서 매화, 난초,국화, 대나
무를 그린 그림. 7.꼭지에 달린 꽃이나 열매 따위
를 세는 단위. 장미 열 ~. 9.무거운 물건 등이 쓰러
지지 아니하도록 받쳐놓는데 쓰는 것. 10.갖 결혼
한 부부. 12.아이를 낳음.→해산. 14.민물에 사는



<함께 풀어봅시다 286회 정답>

▶지나주 정답자

임요섭 : 광주시 서구 화정1동
안영준 : 광양시 진월면

▶응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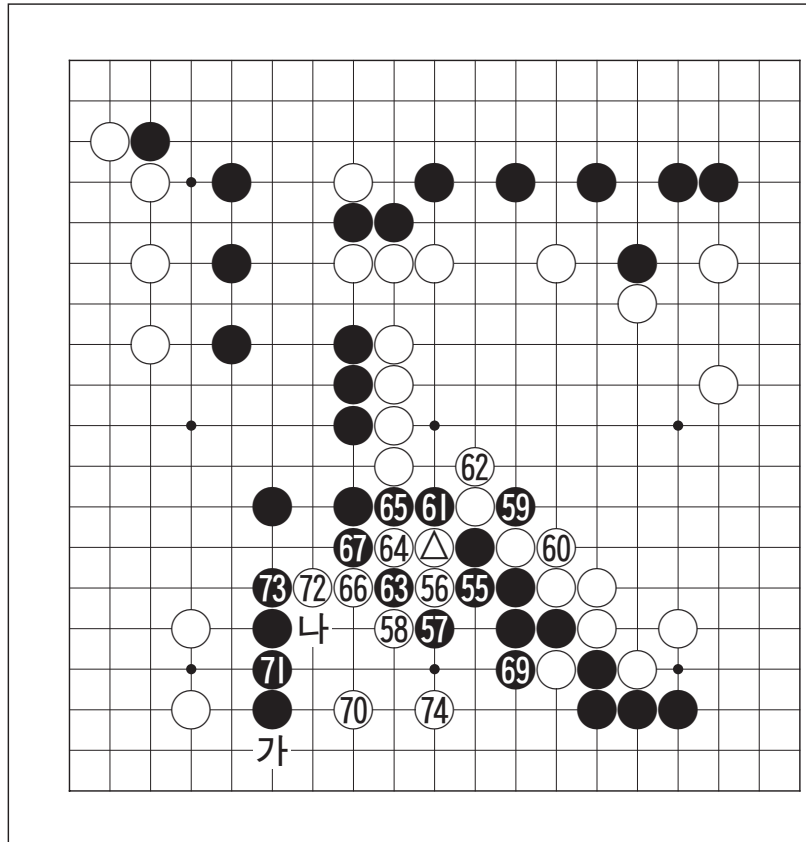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신 때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
주일보사 여문예재부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2월4일(음 12월 28일 甲戌)

运势 column with zodiac signs and horoscope text. Includes signs like 子 (Rat), 丑 (Ox), 寅 (Tiger), 卯 (Rabbit), 辰 (Dragon), 巳 (Snake), 午 (Horse), 未 (Goat), 申 (Monkey), 酉 (Rooster), 戌 (Dog), 亥 (Pig).



제5회 KBC사장배
때아닌 승부처 5보(55~74)
유단자부
결승전
白 선민호 (호초초등 6)
黑 이건희 3단 (월봉초등 5)

백 △가 각오하기는 했지만 아픈
자리였다. 이때 이건희군은 흑 55
로 잇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는데
이 수는 워낙 모양이 나빠 57 자리
에 물러서서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지금은 백에게도 단점이 많
아 흑 한점을 주기가 싫었던 모양
이다.
그렇다면 백도 56으로 밀고 내려
간 것은 기세며 흑 57로 짓히고 백도
58로 맞 짓혀가 하면 때아닌 승부
처로 변해버렸다.
이건희군이 이렇게 강하게 버틴데
는 흑 59로부터 67까지 회돌이로 모
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까지 기분을 냈으나 만약 이 백
대마가 살아간다면 대실패다. 그래서
백 70을 보더니 절대 연결은 안된다
고 외치며 흑 71로 짝 이어 필살의
지를 드러낸다. 이 수는 71에 끼우는
수와 '가'로 붙여 넣는 수를 방지하고
있다.
선민호군은 아직 걱정을 얹고 있
다. 별로 시간을 쓰지않고 자신있는
손질로 백 72를선수하고 74로 자리
잡는다. 수순중 72는 73에 붙이고
'나'로 짓히는 맛을 없애 막수였다.
이 수는 보류하고 그냥 74로 두는
것이 나왔다. 과연 백 대마가 살 수
있을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청룡전 윤준상·한상훈 2파전

청룡의 주인을 가리는 제5회 전자랜드
배 청룡왕전이 사실상 윤준상 6단과 한상
훈 2단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윤준상과 한상훈은 지난 1일 서울시 한
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8강전에서 각각
강동용 7단, 윤현희 2단을 꺾고 준결승전
에 올랐다. 이날 승리를 거둔 윤준상과 한
상훈은 4일 준결승전에서 격돌하게 된다.
준결승전 남은 두 장의 티켓은 김승재
초단·최원익 5단, 윤혁 5단·염정훈 6단의
8강전 승자가 차지하게 되지만 윤준상·한
상훈의 대결이 사실상 결승전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번 대회 상금은 우승 1천만원, 준우
승 300만원이며 제한시간은 각 10분 40
초, 초읽기 1회다. /오광복기자 kroh@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은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Let's go to the grocery store.
식품점이나 가조
A: What do you want for dinner?
B: I don't think we have anything in the fridge.
A: Do you want to go out?
B: No, let's go to the grocery store.
A: 저녁 먹을 거야?
B: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으 텐데요.
A: 나가서 먹고 싶어?
B: 아뇨, 식품점이나 가요.
\* 내일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morrow.
\* 자네 어머니는 내일 오지 않을 것 같은데.
= I don't think your mom should come next weekend.
\* fridge : 냉장고
\* go out : (식사하러, 즐기러) 외출하다
\* grocery store : 식품점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禁煙(きんえん)です.
금연입니다
A: 金さん、このハンブルは何(なん)の意味(いみ)ですか。
B: 禁煙(きんえん)です。「タバコを吸(す)う」という意味(いみ)です。
A: あ、禁煙(きんえん)という意味(いみ)ですか。漢字(かんじ)ならすぐ分(わ)かりますけど。すみませんが、このハンブルを日本語(にほんご)で翻譯(ほんやく)してほしいんですが。
A: 金さん、このハンブルは何(なん)の意味(いみ)ですか。
B: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A: 아, 금연입니까? 한자라면 금방 알 수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이 한글을 일본어로 번역해 주면 좋겠는데요
禁煙(きんえん) : 금연
タバコを吸(す)う : 담배를 피우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 to ☎ 228-2545

你正在做什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A: 你哥哥正在做什么?
Ni gēgē zhèng zài zuò shénme?
니 형이 뭐하고 있어?
B: 我哥哥正在做作业。
Wǒ gēgē zhèng zài zuò zuòyè.
뭐 형이 뭐하고 있어?
A: 你姐姐正在做什么?
Ni jiějie zhèng zài zuò shénme?
니 여제이 뭐하고 있어?
B: 我姐姐正在玩电脑游戏。
Wǒ jiějie zhèng zài wán diànnǎo yóuxì.
뭐 여제이 뭐하고 있어?
A: 네 형 지금 뭐 하고 있니?
B: 지금 공책하고 있어.
A: 네 누나 지금 뭐 하고 있니?
B: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作遊 [zuòyù] : 유제
電腦遊戲 [diànnǎo yóuxì] : 컴퓨터 게임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옆)>
☎ 383-1605

한자 이야기 <677>
快犢破車(쾌득파차)
상괘할 쾌, 송이지 득, 깨뜨릴 파, 수레 차
쾌득파차(快犢破車)는 팔팔한 송이지가 수레를 부순다는 뜻으로 '쾌득파차'라고도 읽는다. 쾌(快)는 결단(決斷)을 앞둔 심리적(心理的) 상태를 뜻하는 글자로, '통쾌하다' '신나다'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쾌득(快犢)은 쾌도(快刀)와 마찬가지로 성질이 거센 송이지를 말한다.
성질이 팔팔한 송이지는 아마도 제가 끄는 수레를 부술지라도, 무사히 장성하게 되면 반드시 장쾌한 소가 될 수 있다는 비유이다. 어려서 비록 행동이 거친 아이일지라도 잘 키우게 되면 장차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어렸을 때의 성품이나 소행으로 사람의 장래를 속단(速斷)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뜻도 담고 있다.
이 말은 중국 5호16국의 하나인 후조(後趙)의 제3대 황제 석계룡(石季龍)의 일화에서 나왔다. 석계룡은 어려서 성격이 잔인하고 말달라 사냥하며 방탕하게 놀기를 좋아하였다. 더욱이 활로 사람을 쏘는 일이 잦자, 군중(軍中)에서는 그를 죽이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삼촌인 1대 황제는 "장쾌한 소는 송이지 시절에 곧잘 수레를 부수곤 하는 법이니 너희는 마땅히 잠시 참아야만 한다(快牛爲犢子時, 多能破車, 汝當小忍之)"고 말하였다. 이후 그는 무장으로 큰 공을 세우고 드디어 황제의 지위까지 올랐다고 한다.(晉書)